

# “광양5일시장, 저렴한 대표 먹거리 개발로 유인책 만들어야”



광양시 대표 전통시장인 광양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대표 먹거리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광양시는 7일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열린

‘광양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매실 등 광양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주차타워 설치, 시장 상인 의식 전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광양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매실 등 특산물 활용 먹거리 개발·주차타워 설치 등

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관계부서장, 상인회,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역장의센터(대표 이경환)의 시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사례분석 등 과업 추진 현황을 보고한 후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정인화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4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관광 자원 등 연계 발전 방안 ▲유휴공간 활용 ▲상인 자생력 강화 ▲주차환경개선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용역 결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등 광양5일시장이 전국 최고 시장으로 발돋

우하는 밑그림으로 활용된다. 이경환 대표는 “광양5일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표 먹거리의 부재”라면서 “5일시장의 집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 먹거리 개발에 이어 단계적으로 영업일을 늘려 매일시장 형태 또는 주민생활복지형 복합공간으로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소재로 한 매실(편) 비빔밥, 매실국수, 매실 닭구이 등을 상품화하고, 산업도시 타깃 젊은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양조장(브루어리)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말시장

등 월 10일 이상 영업가능 시장으로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매일시장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도 ▲유휴공간 내 유휴공간 재정비로 집객 공간 조성 ▲가격경쟁력 강화 ▲특색을 살린 새로운 시장 명칭 개발 ▲상인 소개 디지털 보드 제작 ▲주말 백반 뷔페 매장 운영 등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지속가능 전통시장 조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제시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세부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며 최종 보고서에 보완을 요구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3보향(寶鄕) 보성의 3색 알아가자! ‘남도 문화 답사’ 평생 교육 개강

10월 3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총 16회 강좌 운영

보성군은 지난 5일 다항울림촌(대표 문규성)이 보성의 역사·문화·예술 등에 관심 있는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남도 문화 답사’ 평생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남도 문화 답사’는 지난 4월 선정된 ‘2023년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보성 역사 문화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10시 다항울림촌에서 ‘3보향(寶鄕) 보성의 3색 알아가자!’라는 주제로 총 16회(강의 14회, 답사 2회) 진행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전남 그리고 보성과 역사 문화, △의향 남도의 보성 중심인물, △보성 소리와 판소리 인문학, △차의 역사와 다량 보성의 면모 등 전문가 강연(10회), △보성 숲, 보성 역사문화유적지 등 현장 탐방(2회), △스토리텔링 만들기, △3보향 답은 프로그램 개발

및 발표(4회) 등이다. 특히, 숲과 문화학교 강영란 교장, 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노기욱 선임 연구원, 영암 문화관광재단 전고필 대표, 한국차문화산업 발전 연구원 서명주 원장 등의 유명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다항울림촌 문규성 대표는 “이번 교육 참가자들이 3보향 보성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활동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 ‘낙안 배’ 수출 박차

순천명품 낙안 배 대만·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사로잡아

순천시는 최근 순천명품 낙안 배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부터 낙안배영농조합법인 선별장과 승주읍 소재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APC)는 올해 수확한 낙안 배 수출을 위한 공동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선적된 낙안 배는 신고품종 16여 톤(6천만 원 상당)으로 대만 현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지난 1일 낙안배영농조합법인은 대만으로 16여 톤을 선적했고, 11일에도 같은 양을 선적할 예정이다. 한편, 거점APC에서는 6일 베트남, 8일 대만으로 각각 16여 톤을 선적할 예정이며, 추석 이후 각국에 본격적인 수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순천명품 낙안 배는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활기를 띠며 대만, 베트남 등 해외 각국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배 500여 톤이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신순욱 과장은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과 행정, 농업인, 수출업체, 기관 간 긴밀한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 찾아가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8월1일~9월4일까지 1420여 명 대상...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

여수시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4일간 분산해 신월동 공영차고지 내 운수종사자 교육관에서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문 강사가 개성된 도로교통법과 친절 서비스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례집을 배포해 ‘시민의 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자질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힘썼다. 여수시는 이번 교육에서 제기된 불편 민원 접수 사항 중 급정거·급출발 근절교육 요구에

따라 이를 내년도 교육에 추가 반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수환 교통과장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들이 여수시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찾아가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은 지난해 8~9월 중 21일간 진행됐으며 145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